

1. 이웃을 무엇처럼 사랑해야 하나요?

- ① 강도 ② 사제
- ③ 레위인 ④ 사파리아인

2. '착한 사파리아인의 비유'의 순서를 맞춰보세요.

사제가 그를 보고 지나가 버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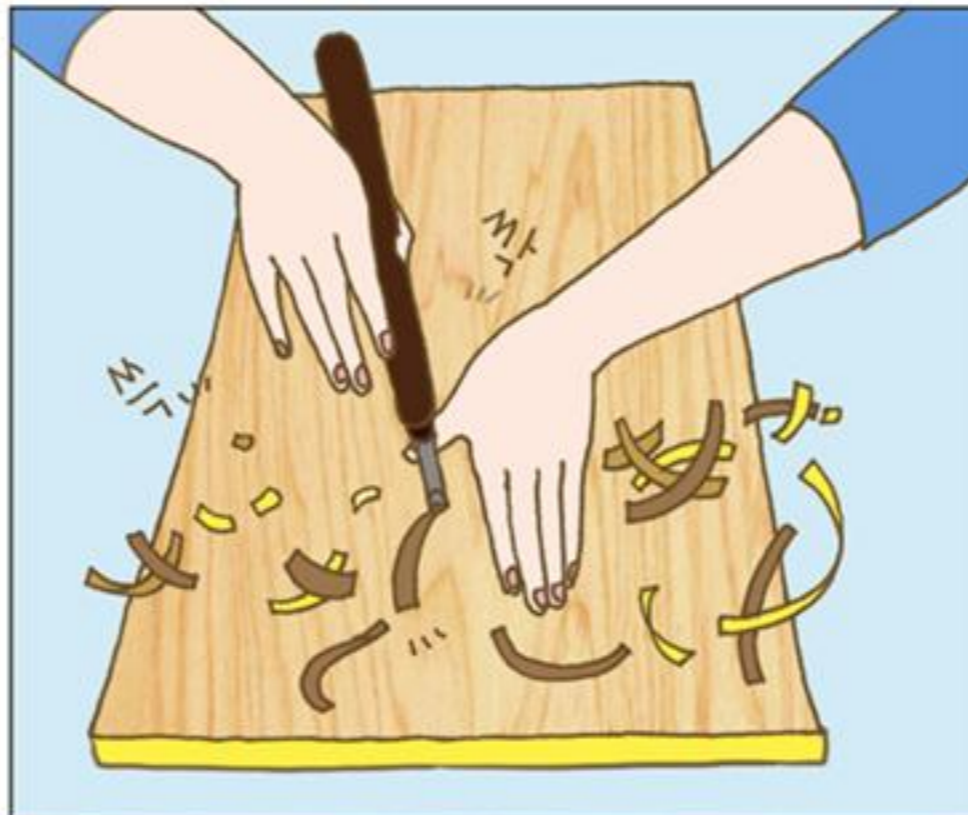
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되었다.

사파리아인이 그를 돌보아 주었다.

3.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보세요.

“그에게 를 베풀어줍니다.”

- ① 은총 ② 자비
- ③ 사랑 ④ 감사



내 맘속에 깊이 새겨진 주님의 사랑.
이제 살아나야 할 때입니다.

연중 제 15주일

'네 이웃을
너 자신처럼
사랑해야 한다.'
(루카 10, 27)



예수님이 주신
사랑의 계명
사랑하라 ♡

성광

학년

이름


성명

1독서 **여행** 

✦ 신명기의 말씀입니다. 30,10-14

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. ¹⁰ “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,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,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. ¹¹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. ¹²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. 그러니 ‘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?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.’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. ¹³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. 그러니 ‘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오?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.’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. ¹⁴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.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,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2독서 **여행** 

✦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. 1,15-20

그리스도 예수님은 ¹⁵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만이이십니다. ¹⁶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.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. ¹⁷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. ¹⁸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.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만이이십니다.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. ¹⁹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총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. ²⁰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.
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복음 **여행** 

✦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 10,25-37

그때에 ²⁵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?” ²⁶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“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?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?” ²⁷ 그가 “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” 하였습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²⁸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옳게 대답하였다. 그렇게 하여라.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.” ²⁹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, “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?” 하고 물었다. ³⁰ 예수님께서서 응답하셨다. “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.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. ³¹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,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. ³²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,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. ³³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,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. ³⁴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,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. ³⁵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, ‘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.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.’ 하고 말하였다. ³⁶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?” ³⁷ 율법 교사가 “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.” 하고 대답하자, 예수님께서서 그에게 이르셨다. “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.”

주님의 말씀입니다. © 그리스도님, 찬미합니다.

 오마리아수녀의
주일 복음 그림
- 바오로달콘텐츠

